

전국 시·군·구 절반 '소멸 직전' 위기



▲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이 텅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11일 '뉴시스'가 한국고용정보원이 이날 발간한 제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49.6%)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위험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곳을 말한다.

인구는 정부가 지자체에 나눠주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중요한 잣대여서 주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인구가 많을수록 살림살이가 풍족해지고 반대일 땐 팍팍해진다.

인구절벽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기도 하다. 통계청의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자료를 보면 지금의 인구소멸 추세를 방지할 경우 48년 뒤인 2070년에는 3,80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6.4%가 65세를 넘길 것이라 충격적인 전망도 있다.

인구절벽 난제에 맞닥뜨린 한국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다. 올해부터 매년 10년간 1조원씩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쏜다. 최고 A등급을 받은 충남 금산·전남 신안·경북 의성·경남 함양 4곳이 210억원씩, 최하위 E등급 15곳은 112억원씩 배분한 상태다.

특히 대기업과 대학 및 특수목적고의 지방 이전을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보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인프라, 문화·예술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서울대, 대학교 브랜드 평판 1위

한국내 대학교 브랜드 평판 2022년 10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서울대학교 2위 연세대학교 3위 고려대학교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소장 구창환)는 한국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대학교에 대한 브랜드 빅데이터 평판 분석을 하였다. 대학교 브랜드 평판 분석은 2022년 9월 11일부터 2022년 10월 11일까지의 브랜드 빅데이터 232,025,267개를 분석하였다. 지난 9월 대학교 브랜드 빅데이터 215,372,179개와 비교하면 7.73% 증가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대학교 브랜드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디지털 행태를 평판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하였다. 한국브랜드모니터 소비자위원이 진행한 채널평가도 포함하였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



▲ 서울대학교 정문과 정문광장. 사진=연합뉴스

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을 측정할 수 있다

4위~10위는 중앙대, 동국대, 성균관대, 건국대, 단국대, 한양대, 가천대가 각각 차지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한국내 브랜드의 평판지수를 매달 측정하여 브랜드 평판지수의 변화량을 발표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기업평판연구소 홈페이지' (bri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주택 구매 희망자 급감

서울에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

11일 '아시아경제'가 KB부동산이 이날 발표한 주간주택시장동향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19.9로 내려앉았다. 전주(20.4)보다 0.5포인트 하락했고, 한 달 전과 비교하면 5포인트 급감했다. 2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3년 9월 첫째 주(18.7) 이후 9년 만이다. 매수우위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매수자가, 낮으면 매도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하락세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올 5월(첫째 주 기준) 61.2이었던 매수우위지수는 5개월 만에 41.3포인트나 떨어졌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108로, 기준점인 100을 넘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더 많았고 2년 전인 2020년 7월 첫째 주에는 154.5까지 올랐던 것과 대조된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지난주 77.7로 3년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매수심리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다. 매수세가 위축된 가장 큰 이유인 기준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줄면서 집값 역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없고, 주택 가격이 저점을 찍었다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진 현재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9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